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박철희,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환경이 없는 지역발전의 한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로 뒤덮였던 태안 앞바다의 백사장은 다시 조금씩 본래의 모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변 자갈과 손이 닿지 않은 바위와 섬에는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한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바위 사이에 굳어 있던 기름이 녹아 해안으로 유입되어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태안군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고로서 이러한 환경오염 사건들은 1970년 울산공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점차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표 1〉 국내 주요 환경관련 사건들

1970년	울산공단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 피해
1975년	진해만 적조·바다오염 피해
1978년	담양 고씨 수은 중독 논란
1985년	온산공단 대기오염으로 인한 '온산병' 논란
1987년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인근에서 기형 송아지 출산 논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1995년	유조선 시프린스호 좌초
1996년	시화호 오염 논란
1997년	소각장 다이옥신 오염논란
1998년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
2004년	경남 고성 폐광지역 이타이이타이병 논란

자료: <http://joins.com>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피해지역도 광범위하여 해당 주민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그 파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 지역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문제를 극복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 외국 도시들 중 일본 미나마타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태안군의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세계의 환경도시들

1. 공해도시에서 환경도시로 - 일본 미나마타시

1) 미나마타시(水俣市)의 개요

미나마타시는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약 2만9천명(2007년 현재)의 전형적인 지방소도시로서 1956년 일본 4대 공해의 하나인 미나마타병이 발생, 지역주민의 건강과괴는 물론 환경과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붕괴되었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모범적인 환경모델 도시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미나마타시가 환경모델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몇 가지 실천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나마타시 ISO 환경매니지먼트 시스템

(1) 미나마타시 환경 ISO(ISO 14001인증) 시스템

미나마타시는 1998년 6월 당시 시장이 인증취득선언을 한 후 그 이듬해인 1999년 2월에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의 국제규격인 ISO 14001인증을 일본에서 여섯번째로 취득하였다. 미나마타시는 ISO 14001인증 자체를 취득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가 술선해서 환경모델도시만들기, 이산화탄소 삭감, 자원재활용 등을 추진하려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다.

*** 인증 취득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적인 환경모델도시 추구를 위한 큰 밑거름
- 지역이미지 향상(공해도시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
- 시청사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절약에 의한 경비의 절감
- 시민, 공무원의 환경에 관한 의식개혁 및 행동구현
- 관내 중소기업에 환경ISO취득을 위한 지원

(2) 가정판 ISO 시스템

미나마타시 가정판 ISO시스템이란 미나마타시의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더 이상의 훼손 없이 물려주기 위해 가정 내에서 이산화탄소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부하 절감 등 ISO개념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약 80세대에서만 실행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800세대(시 전체의 약 7%에 해당)까지 보급하는 것이 미나마타시의 목표이다.

가정판 ISO는 먼저 각 가정에서 실천할 환경보전 또는 에너지절약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어머니는 생필품 절약, 아버지는 자동차 연료 절약에 관련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설정한 후 실행, 기록한다. 실행 3개월 후 심사기관에 의한 심사과정을 통해 인증을 받게 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절차〉

- ▶ 행동선언 :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을 소등하자” 등 정해진 35개 항목 중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선택하여 행동선언
- ▶ 역할분담 :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
예) 어머니 : 쇼핑관련, 아버지 : 자동차관련, 자녀 : 재활용 등
- ▶ 행동기록 : 상기에서 선언한 내용들에 대한 성과기록
- ▶ 반성 : 수시로 성과기록을 분석하면서 반성
- ▶ 심사 : 3개월 후 심사, 미나마타시 청년회의소 또는 쓰레기 절감 여성연락회의소에서 심사
- ▶ 인증 : 심사에 합격한 가정에 시장이 인증서 부여
- ▶ 기타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매년 정기심사 있음)

(3) 학교판 ISO 시스템

미나마타시 학교판 ISO시스템이란 가정판 ISO시스템과 동일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산화탄소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부하 절감 등 ISO개념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이다. 현재 시내의 전 초등·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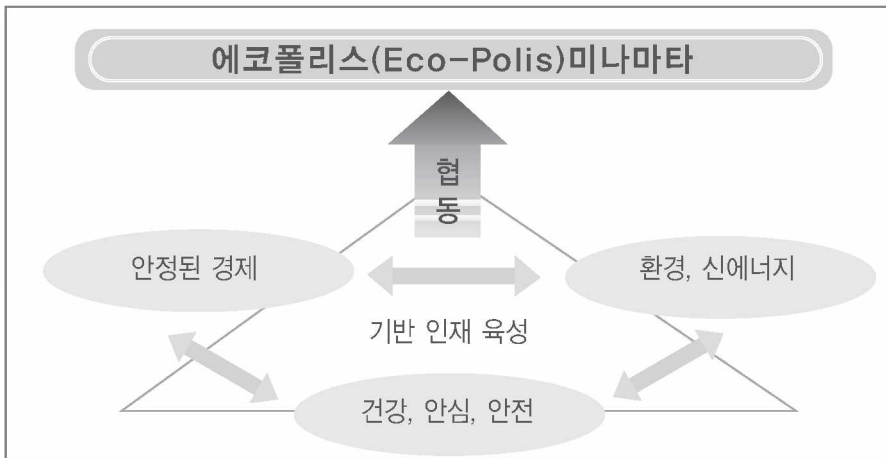
- ▶ 행동선언 : “교실에서 전기를 철저히 절약하자” 등 학생과 교직원이 5개 이상의 항목 선언
- ▶ 역할분담 : 학교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
예) 교장 : 환경관리총괄자, 담당교직원 : 환경추진원, 학생회장 : 환경리더
- ▶ 행동기록 : 상기에서 선언한 내용들에 대한 성과기록
- ▶ 반성 : 수시로 성과기록을 분석하면서 반성
- ▶ 심사 : 3개월 후 심사, 미나마타시 교육위원회 환경대책과에서 실시
- ▶ 인증 : 심사에 합격한 학교에 시장이 인증서 부여
- ▶ 기타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매년 정기심사 있음)

3) 에코폴리스(Eco-Polis) 미나마타 구상

(1) 기본이념

미나마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해병(미나마타병)을 경험하면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환경모델도시만들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심하며 안전한 생활을 달성하고자 시민과 행정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에코폴리스 미나마타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코폴리스 미나마타란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행정이 협동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주자립의 지역 만들기, 환경과 조화된 경제 발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량과 자신이 넘쳐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기본방향

가. 여유로운 생활 창조

각 분야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구사하여 풍부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세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창조하고자 한다.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신에너지개발, 재활용품 이용 촉진, 쓰레기 감량, 환경학습시설 확충, 자연환경보전, 지역고유의 경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나. 풍요로운 생활 창조

자원순환형산업진흥, 에코타운조성, 지산지소(地產地消) 등의 추진을 통해 효율적으로 순환하는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에코타운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역산업 육성, 환경비즈니스 창조, 환경보전형 농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이 있다.

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창조

지산지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 마을 만들기, 보건·의료·복지시설 정비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창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식센터 정비, 모자보건활동 충실, 생활습관병 예방, 재택의료 확충, 복지시설 확충, 마을 만들기(마치즈쿠리) 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라. 인재 육성

미나마타지역의 고유한 문화, 풍토, 전통을 계승해 나갈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교육 충실, 학교시설 정비, 인권교육 충실, 지역문화교육 실시, 향토예능 보전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 협력에 의한 지역 창조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행정이 협동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주자립의 지역 만들기, 환경과 조화된 경제 발전, 건강하고 안심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 시정(市政)에 시민참가시스템 구축, 마을 만들기 활동 지원, 민관협력 도입, 인재육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

4) 미나마타 에코타운(Eco-Town) 구상

(1) 조성 배경 및 목표

미나마타시는 그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온 환경보전활동의 노하우를 살려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은 지역에서 재활용하는 지역 내 “제로에미션(Zero-Emission)”을 확립하고자 자원순환형지역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환경공생을 기본 축으로 환경모델도시에 어울리는 산업단지(종합리사이클센터, 총면적 21.8ha)를 조성하는 미나마타 에코타운을 계획하여 2001년 2월에 중앙정부 승인을 받았다.

중앙정부로부터 에코타운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우대 조치는 물론 시에서도 별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 우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ISO 14001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더구나 조업 후 배수를 비롯한 공해 측정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또한 시가 참관한 가운데 시민들이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조향도 들어 있기에 시와의 협정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2) 종합리사이클센터에 입지한 시설 및 기업

가. 미나마타 환경테크노센터(사업주체 : みなまた環境テクノセンター)

1999년 3월에 산학관(産學官)이 연대하여 환경비즈니스의 거점으로서 설립하여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 수자원 환경조사 등 에코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나. 가전제품 재활용 시설(사업주체 : (주)アクトピーリサイクリング)

가전제품리사이클법에 의거 대상품목(텔레비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을 고도의 기술로 분해, 선별하여 리사이클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다. 빈병 재활용 시설(사업주체 : (주)田中商店)

빈병을 회수, 세정, 검사하여 재사용(re-use)이 가능한 재생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은 cullet 처리하여 포장(鋪裝)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라. 폐유 재활용 시설(사업주체 : (주)喜樂)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회수, 여과하여 재생중유를 생산하고 있다

마. 유기질비료제조 시설(사업주체 : (주)アール・ビー・エス)

미나마타지역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오물 등을 회수하여 토양균에 의한 분해, 탈수, 건조과정을 통해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고 있다.

바. 페타이어 재활용 시설(사업주체 : (주)南九州タイヤリサイクル)

사용연수가 지난 페타이어를 회수, 분해, 파쇄, 분체처리과정을 통해 원료용고무분 및 투수성 고무타일, 시트, 매트 등을 제조하고 있다.

사. 폐플라스틱 복합재생 시설(사업주체 : (주)リプラ・テック)

용기포장(包裝)리사이클법에 의거 폐플라스틱을 고도의 선진기술에 의해 원료용 재생수지 및 2차 상품(매트 등)을 제조하고 있다.

아. 건설폐기물 등 재활용 시설(사업주체 : (주)水 アスコン)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 등을 회수 리사이클 처리하여 재생합재를 제조하고 있다.

(3) 성과

에코타운의 성과로서는 우선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기술 및 재활용기술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리사이클 노하우의 feedback 및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 배양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창출 및 진흥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이다.

(4) 에코타운사업 지원제도

가. 자원순환형 지역진흥시설정비 보조금

에코타운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상지역에 환경리사이클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2를 경제산업성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나. 미나마타시 자원순환형 지역진흥시설정비 보조금

상기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받은 보조금액의 1/10(상한 1,000만엔)을 미나마타시가 보조해주는 보조금

다. 기타

- 중앙정부 : 산업재배치촉진환경정비보조금
- 현 : 세금감면(법인사업세 등), 기업입지촉진보조금, 기업입지촉진자금융자
- 시 : 고정재산세 면제, 고용장려금, 유치기업입지촉진보조금, 지역종합정비자금급부, 미나마타시 산업기술개발보조금

2. 21세기 환경산업도시로 - 독일 프라이부르크

1) 프라이부르크 시 개요

프라이부르크는 500년 이상 된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비롯하여, 인근에 '흑림(Schwarzwald)'¹⁾이라는 유럽최대의 삼림이 있는 독일 남서부의 도시로서 '물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형성은 12세기 초로서 제1차 세계대전은 프라이부르크를 중세도시에서 근대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1840년에 1만3천여 명이었던 시 인구가 1차 대전 이후엔 6만1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1940년 독일군의 오폭과 1944년 연합국의 공습에 의해 시민 3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역사적인 건축물 대부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에 대한 재건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는 역사적인 건조물 보존 및 복원, 철도 등 대중교통 기관의 확대, 환경도시 만들기에 나섰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태양에너지 시설을 대폭 도입해 시를 태양의 도시로 만들었고, 1992년 프라이부르크가 독일 연방의 환경수도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2) 핵발전소 반대 운동과 흑림 산성비 피해

프라이부르크가 환경 수도가 된 배경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와 투쟁, 그리고 독일 전체가 산성비 등으로 인해 흑림 등 삼림의 고사와 피해를 계기로, 시민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 했다.

1970년대 초 당시 원전 건설 반대는 프라이부르크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학생은 주민들과 '시민대학 비밀의 숲'을 열어 전문가를 초청해 원전의 위험성, 대체에너지, 숲의 중요성 등에 관해 공론을 모았다. 이러한 시민의 힘에 연방정부도 계획을 단념했던 것이다.

이 운동을 계기로 시민들 사이에 '환경을 내 손으로 지키자'라는 의식이 뿌리내렸다. '흑림 지키기 운동'에서 시민들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으로 나아가게 됐다

1) 독일 남부지역의 삼림지대인 '흑림(Schwarzwald)'은 동부로 약 60km, 북부로 약 20km에 걸쳐 있다. 이 흑림의 관문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10여 년 전부터 녹지관리에 살충제 등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시의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연변의 잔디녹지대는 물론 도심의 잔디나 초지도 가능한 잔디 깎기나 풀베기 횡수를 줄이고 있다. 그 이유는 녹지대속의 새나 곤충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이다.

2) 도시의 중심하천인 드라이집천이 흑림에서 발원해 프라이부르크를 관통한 뒤 라인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다. 또한 시민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해준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했다. 거기서부터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한 입장에서 환경의 연구를 하는 '에코 인스티튜트'가 프라이부르크에 창설된 것이다. 이 연구소는 현재 주나 연방정부로부터 위탁조사를 의뢰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연유에서 프라이부르크시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본부나 지부, 그리고 연구기관이 많다.³⁾

3) '환경 최우선'의 도시행정과 이를 이끌어 가는 시민 환경단체의 힘

프라이부르크는 시민과 행정 간의 파트너십이 잘 행해지고 있는 도시이다. 시가 환경 최우선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개발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보전을 우선시 하는 환경의식과 참여에서 비롯된다.

시민이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한 사례로는 프랑스군 기지 이전 적지인 보봉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지 계획을 들 수 있다. 시민들은 '포럼 보봉'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자동차 없는 주택구역', '도심에 녹음', '다양한 주거형태를 함께', '에너지절감주택 건설' 등을 추구했다.

4) '녹색인'을 양성하는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독일은 1971년 연방정부가 환경계획을 수립해 일반 시민도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노력하도록 했으며 환경교육을 학습지도계획에 넣도록 했다. 실제로 1980년부터는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기가 시작될 때 교사가 '재생지 노트를 살 것', '만년필 사용하기' 등을 강조한다. 교과서는 무상대여이다. 교과서가 매년 하급생에게 물려져 몇 년간 사용된다. 분실한 경우에는 자기가 구입해 반환해야 하며, 교과서를 갖고 싶다면 책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절로 환경마인드를 갖게 된다.

3) 독일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풀뿌리 환경단체 분트는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토지개발 건설계획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환경전시회, 에코스테이션의 운영, 환경프로그램 제작, 환경컨설팅, 통신문과 개발, 텔레비전 모니터링, 기업을 위한 환경보전활동 세미나 개최 등 활동이 폭 넓다. 원전 건설 계호기를 중지시킨 분트는 원자력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에코스테이션, 축구경기장 옥상에 태양전지패널 설치사업을 펴고 있다.

1994년 바덴뷔르템주는 새로운 학습지도계획을 내놓았는데 영어나 프랑스어 교과서에조차 환경을 주제로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의 지도계획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런 영향으로 학생이 중심이 돼 '쓰레기 없는 학교 만들기'가 추진된 사례도 있다. 공공집회에서의 일회용 식기 금지 의무화 이전에 이미 학교에서 이 같은 운동을 하고, 폐건전지의 회수 등에 노력한 경우도 많다. 시는 학교와 에너지협약을 맺어 학교난방 및 전기에너지, 물 절약 운동을 펴기도 한다.

환경교육은 대학에서도 생활화되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대학 내에는 몇 안 되는 자동판매기도 보증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자기 컵이 아닌 비치된 컵을 사용할 경우 50 페니(약 3백50원)를 더 넣었다가 40페니를 돌려받게 돼 있다. 대학 내에 있는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은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5) 친환경정책으로의 제도 개선

프라이부르크 시의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은 1970년대 초부터 77년까지 프라이부르크시 교외의 비일 원전건설 반대와 흑림 보전운동, 76년 11월의 브로크도르프원전 반대운동, 77년 고루벤의 핵연료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주민운동 등이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부르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비일 원전의 건설계획반대를 결정함과 동시에 원자력경제에서의 탈피를 결의하며 다음의 강령을 채택하게 된다.

첫째, 자연자원의 착취를 중지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대량생산을 반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경쟁이 없는 사회시스템을 창조한다. 둘째, 성장지상주의가 생활기반을 파괴한다는 인식에서 인권과 민주적 제권리를 옹호하고, 약자의 입장에 서서 차별을 없애며 여성을 해방한다. 셋째, 중앙집권을 대신해 분권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넷째, 비폭력 원칙을 고수하되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권은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농업문제에 관해서도 기계화 농업에서 유기 소규모농업으로의 전환, 쓰레기발생 억제, 리사이클의 추진, 다이옥신오염의 방지, 쓰레기소각로 신규건설 반대, 기존소각로의 폐지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독일의 산폐물정책과 다이옥신대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서독이 통일된 90년 이전에 모두 27기였던 독일의 원전은 현재 19기로

줄었다. 시는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의 개발 보급에 힘을 쏟아 앞으로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6) 미래의 선택

프라이부르크 시는 태안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1970년대 흑림 산성비 피해와 원전반대운동을 계기로 도심에 자동차도로를 늘이기보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즉 프라이부르크의 시민다움이 이러한 친환경정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원전 반대이후 '에너지자립도시'를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연구단체를 만드는 등 지역비전의 생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의 올바른 행정이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섰으며 지역 NGO 등에 적극 참여해 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프라이부르크에는 한국처럼 '10부제 운동' 같은 것은 없다. 시민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캠페인성 홍보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피부로 느끼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도심에 차를 갖고 다니는 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Ⅲ. 환경을 지역발전전략으로

UNDP(유엔개발계획)의 모토가 '선례에 의한 발전(Development by Good Examples)'이라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이를 새로운 모델로 삼아 발전해나가자는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 나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는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의 미나마타시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세계적인 환경모델 도시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 공통된 원동력은 뚜렷한 비전과 명확한 전략,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철저한 환경교육, 행정의 서포터를 뽑을 수 있다. 즉 시장의 탁월한 비전과 도시경영 능력, 그러한 리더십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철저한 연구와 계획

을 토대로 시책을 전개해나가는 행정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시민의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교육 등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태안이 세계적인 환경모델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뚜렷한 비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비전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산업부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1세기 환경시대에 걸맞게 식량이나 식수의 안정적 확보 및 신에너지 개발, 도시와 농촌의 공생, 지역관광사업의 육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해창,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이후, 2003.
2. 이노우에 토시히코·아키히사 편저, 유영초 옮김,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사계절, 2007.
3. ICLEI, 『Local Strategies for Accelerating Sustainability: Case studies of Local Government Success』, 2002.
4. 水俣市, 『第4次水俣市総合計画』
5. 水俣市, 『水俣市環境白書2000年度版』, 水俣市, 2000.